

# 나주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7개 권역 사업소 운영 '전국 최대 규모'

지난 23일 개소식...30여종 91대 갖춰



나주시 관내 공산, 동강, 반남 지역

을 아우르는 '남부권 농기계 임대'

## 장성군, '전남도 고용 우수 인증기업' 모집

장성군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위한 '2019년 전남도 고용우수 인증기업'을 모집한다.

'2019년 전남도 고용우수 인증기업' 신청 대상은 전남도 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 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이다.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기업별 2천만 원의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며, 인증일로부터 2년간 전남도 기업육성자금 및 청년근속장려금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부문 고용이 촉진되고 더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겠다"며 "많은 기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업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장성군은 현재까지 총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소' 가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공산면(나주서부로 1385) 소재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지역 농업인 등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영농철 트랙터, 농업용 굽착기 등 값비싼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을 위해 일정기간 저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시설이다.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한 남부권역 임대 사업소는 대지 4,113㎡에 건축면적 484㎡로 조성됐으며, 주요 시설로 농기계보관창고, 간이보관시설, 부품창고, 세차장과 임대 농기계 30여종, 91대를 갖췄다.

개소식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주

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령화, 일손부족, 값비싼 농기계 등으로 지쳐있는 농촌의 활력소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이 오직 농업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임대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남부권역 임대 사업소 개소를 통해 동수동 소재 본점, 분점 4개소, 위탁 2개소 등 총 7개소에 총 358종, 농기계 1,351대를 보유·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임대 서비스를 제공, 예약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있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학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주목받는 애플수박은 꾹지 부분을 뚜껑처럼 절라낸 다음 속을 깊이 빨대만 꽂으면 즉시 생과일 수박 주스로 가지고 다니며 먹을 수 있다. 열대야방의 코코넛 주스처럼 관광지 판매용으로 가능성 있고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라 기대된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에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흥군, 물축제 기간 '목성·토성' 관측회 연장 운영

밤 10시→12시까지

장흥군은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목성·토성' 관측회를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되던 정남진 천문과학관을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정남진 천문과학관을 방문

하면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행성이 목성 표면의 줄무늬와 대적점, 갈릴레이 4대 위성을 볼 수 있다.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도 관측할 수 있다.

천체망원경으로 관측 시 행성과 고리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고리 사이의 카시니 간극까지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여름철 별자리인 거문고자

리, 배자리, 독수리자리, 전갈자리 등 다양한 천체도 관측할 수 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 관계자는 "밤 하늘에 별이라 생각되던 천체가 책으로만 배웠던 목성과 토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주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진다"라며 "올 여름이 행성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기회"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남진 천문과학관 (061-860-0651~2)로 문의하면 된다.

## 아름드리나무 아래 시원한 주말 나들이, 담양 '소풍마켓'



### 메타세쿼이아 인증센터

우천 예보로 인해 연기된 담양 '소풍마켓'이 오는 27일 토요일 메타세쿼이아 인증센터(후문)에서 다시 열린다.

지난 6월 마켓과 같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열리며 제품 판매와 체험, 공연

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타세쿼이아길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구슬밭을 설치해 숲 속의 작은 동산을 연상시키는 포토존과 나무 그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피아노 선율이 함께하는 로맨틱한 문화공연이 관람객을 맞는다.

담양=박종영 기자

또한 지난 마켓에서 반응이 좋았던 럭카타임 이벤트(SNS 인증 시 이용권 지급과 구매왕 이벤트 외에도 모기퇴치제 만들기, 우드 버닝 체험, 꽃밥 만들기, 블럭 맞추기, 바람개비 만들기, 메타세쿼이아 컬러링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이 가능 준비돼 있다.

마켓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빛 여행사업단 (061-383-8043)과 소풍마켓 인스타그램(@dambit\_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풍마켓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통한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군에서 육성한 풀뿌리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담양군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주민참여형 마켓이다.

영광군은 지난 23일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영광군 백수읍 소재)에서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하여 방사선 기초이론, 방사선 비상 단계별 행동요령, 갑상선방호약품 복용법 및 방호용품 사용법 등을 교육했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평소 원전과

### 드림스타트 아동 8명 대상

함평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16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8명을 대상으로 가족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양육 공백 해소, 여가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

함평=김광준 기자



## 영광군 '방과 후 학생' 방사능방재교육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교육 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